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중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곡동 인곡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6  
천보안 호텔: PSPD, 나무누리유니털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 정치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감시국장 金炯完 : 723-5302)  
제 목 새 정부내각 인사총평  
날 짜 1998. 3. 3. (총 2 쪽)

## 새 정부 내각 인사 총평

김대중정권의 첫내각이 마침내 확정되었다. 우리는 우선, '50년만의 정권교체' 만큼의 새로운 모습을 이번 내각이 보여주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김대중정권의 출범에 맞추어 새내각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란, 이전 정권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참신성, 개혁성,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추라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인선은 이런 국민적인 요구에 부합하기 보다는 국민회의와 차민련 두 정파간의 권력배분, 또는 자리나누기에 급급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신임 환경부 장관의 경우 환경분야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인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5공 당시 곡필아세를 불사했던 권력지향적인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새정부의 각료로서 요구되는 참신성과 개혁성, 도덕성은 커녕, 최소한의 전문성조차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또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할 때 복지분야의 전문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인사가 보건복지부의 장관으로 발탁되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전문성 결여의 경우는 신임 과학기술부장관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장을 지냈다고는 하나 군출신으로 80년 신군부에 협력하여 군사쿠데타정권에 참여한 인사가 과연 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이끌수 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신임 재경부장관의 경우도 오늘의 경제파탄에 이르기까지 줄곧 재정과 금융분야정책의 핵심담당자로 역할을 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관치금융극복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합할 수 없는 인사라고 본다. 이밖에 신임 통일부장관은 대결과 냉전의 시대인 70년대에 약 10여년 동안 중앙정보부에서 대북요원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김대중대통령의 통일철학이나 비전에 비추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찌기 김대중대통령이 약속했던 젊은 층의 과감한 인사등용은 이번 입각자의 평균연령이 60세를 전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각료의 20%등용 약속도 역시 지켜지지 못했다.

반면 이번 인사에서 그나마 개혁성과 참신성, 그리고 전문성과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될 측면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본다. 법무장관인선의 경우 새정부의 이미지에 맞는 업무추진력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임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신임 교육부장관의 경우는 평소 개혁성과 성실성 측면에서 나름의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온 인사라는 측면에서, 농림부장관의 경우 WTO환경에서 우리 농업의 운명을 헤쳐나가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에 비추어 비교적 적절한 인사였다는 점에서 각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 하다.

우리는 이번 내각이 총체적인 파탄지경에 이른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 출범하게 되는 만큼 각별한 조건과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투명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김대중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참여의 민주주의를 구현해서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는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대전제이다. 이번 인선과 관련하여 우리가 표명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실망감은 이와 같이 엄중하고 비상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金重培 · 金昌國 · 朴相增